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5월 22일(금)
---(음력 4월 6일)---
Пятница
22 мая 2026 г.
№ 20 (1218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5월 2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국 대표단이 올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문제로 사할린 한인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 (관련 기사 2면, 4면).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신규 가스보일러 건설, 완공 예정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규 가스보일러 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시설은 138MB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가스보일러단지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에 가스를 공급하여 도시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품질이 크게 향상된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신규 가스보일러시설이 건설돼 가동되면 12월부터 3월까지만 가동되던 노후 보일러는 폐쇄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가 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양허 프로그램(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공공시설 건설 및 운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민간 기업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계약)에 따라 수십 개의 보일러시설을 개건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끊임 없는 난방을 공급하여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배려이며, 우선적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가스보일러시설은 일정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물 골조가 조립되고, 샌드위치패널로 외장을 마감했다. 총 1.5km가 넘는 가스관 설치의 85%가 완공, 굴뚝 기초공사 진행, 곧 펌프 및 열교환장비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공사인 '리르-사할린'의 사장 막심 베케르스는 "가스보일러 시설은 완전 친환경적이며 천연가스가 주요 및 비축 연료이다. 우리는 사할린주가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스보일러시설 공사는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로스아툼'공사 산하의 '리르-사할린'회사와 양허계약의 범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산불예방에 첨단 장비 동원

주 정부 회의에서 산불 다발시기의 진행 상황이 논의됐다.

이른 봄과 건조한 날씨에도 사할린주의 상황은 아직 안정적으로, 5월 15일 사할린주에 산불예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상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종합감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와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24대의 영상감시카메라가 지구에 설치됐다. 또한 26대의 무인기를 이용하여 감시하고, 그중 16대는 야간에 이용되는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로써 2,400km이상의 공중순찰 5개 노선과 5,400km에 달하는 지상순찰 61개의 노선이 확인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화재 시 24시간 내에 진압하고 있으며, 이는 고수해야 할 우리의 표준이다. 이에 목표를 확장해 2026년의 수치

가 예년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응해주길 바란다. 향후 화재가 24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화재 유발 건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현재 채택된 조치들의 효력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는데 2021년 사할린주에는 270건의 산불이 기록되었고, 2025년에는 95건으로 감소되었으며, 올해 산불시기에는 7.8헥타르를 태운 2건의 산불과 26.3헥타르의 건조한 들판을 태운 5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모든 화재가 24시간 내에 진화되었다.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진화 전문가 258명과 낙하산 소방대원 57명이 활동하고 있고, 진화작업에 168대의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산불 다발 63구역이 특별관찰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46개 주거지역, 14개 텃밭 구역, 3곳이 아동캠프 구역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거리 신규 구간, 10월에 개통 예정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고리키 거리(불니츠나야 - 지마 구간)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교량이 건설되고, 아스팔트 포장에 준비되고 있다. 이 신규 도로구간은 올가을에 개통될 예정이다.

주지사는 "고리키 거리는 프로젝트 미래대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게 되며, 코르사코브로 가는 출구도로가 생기면서 교통 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정대로 공사가 되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도로공사구간은 2.2km이며, 엘란카강을 건너는 4차선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할린주 도로교통부의 막심 조골레브 장관은 "이미 하중지지대 설치 및 상부구조장치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모든 구조물들이 공사현장에 있으며 공사구간 중간에 있는 지반 토목공사와 옹벽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에는 아스팔트공사가 시작되고, 10월에는 해당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호등과 버스정류장, 가로등, 도로 표지판 설치하는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단신

주지사, 두마에서 연례 보고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지난 20일(수) 주두마에서 정부활동 결과에 대한 연례 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2025년의 핵심적인 성과와 최우선적인 개선 분야를 강조하고, 경제 안정성, 국가계획 시행, 예산투자의 효율성으로서 국민사회복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와 그 가족 지원,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영웅'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하며, 지역의 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사할린주, 구급대 대규모 훈련

사할린과 쿠릴 열도 의료구급대원들이 현대적 장비로 강화된 구급대의 높은 수준을 드러내는 대규모 훈련이 열렸다. 지역 보건부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국민기획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구급대에 최신장비와 표준 적합의 도구들이 갖춰졌다. 현장 훈련에 9개 팀이 참가해 가상의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대응을 수행했다. 의료진은 각 부상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분류를 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응급의료 및 재난의학센터장 콘스탄틴 고르푸켈은 "모든 참가자들은 응급처치 제공 및 서류작성의 정한 알고리즘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동 전선' 탐사에 러시아 및 해외에서 60명 참가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온 탐사대원 60명이 스미르니흐 지역에서 1945년 8월 남부 사할린 해방작전으로 전몰한 장병들의 유물을 찾는 '극동 전선' 탐사에 참가 중이다. 탐사대는 옅조르나야 언덕과 들리나야 및 플로스카야 산에서 집중 활동하며, 군용기가 추락한 스미르니흐 구역에서 발굴을 수행한다. 제7차 탐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비롯해 해외 수색대 350명 이상이 참가한 덕분에 26명의 적위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명예롭게 안장됐다. 발견된 유물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포베다' 기념관과 스미르니흐 지역 박물관에 소장됐다.

<극동에서 창조하다> 포럼: 새로운 기획 및 창조에 투자

<극동에서 창조하다: 콘텐츠에서 자본으로> 포럼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울란-우데에서 열린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 및 북극개발공사, 부랴치야 공화국이 주최한 포럼의 목표는 창조경제 분야의 새로운 기획들을 논의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포럼은 '재정', '아이디어', '개발', '영감', '실질적 기획'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몽골·태국·인도네시아 공동 프로젝트), 문화유산 기반 비디오 게임개발, 지역을 대표한 음악 등이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사회계 소식

영주귀국, 대다수 사할린동포 의견은 '부모 나이 우선순위'

지난 5월 2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국 대표단(단장 재외동포청 아주리시아과 이규현 과장)과의 두 차례 만남이 열렸다. 주요 안건은 2025년 2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의 시행 관련 의견 수렴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할린 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가족이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특별법 제2조 1항).

한국 대표단은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사할린 한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재외동포청 아주리시아과 이규현 과장은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규현 과장은 "각종 협의 절차로 인해 최종 시행 세부 기준은 2026년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규현 과장은 또한 2세대(사망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 접수, 선정, 한국 입국 일정이 현재 추진 중인 생존 1세대 및 동반 가족 영주귀국 프로그램과 같다고 설명했다. 즉 2027년 3~4월 신청 접수, 6~7월 선정자 발표, 11~12월 한국 입국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인원수는 2026년 말에 공개된다. 신청접수는

재외공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만 할수 있다. 사할린에서 접수처는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다. 중요한

점은 지원 프로그램에 러시아 또는 CIS 국적을 가진 사할린동포든,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동포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두 모임에서 전달됐다. 첫 번째 모임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주최로 오전 10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주한인협회는 여러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영주귀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초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근 도시에서 온 사람들과 주한인협회의 지방 대표들도 함께했다. 또한 모임은 온라인 생중계됐다.

박순옥 회장은 새 프로그램의 할당 인원(쿼터)을 기존 프로그램(생존 부모 대상)과 별도로 정하고 쿼터를 늘려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청자의 나이를 우선으로 하되, 그의 부모가 둘 다 모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모임에서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부모 나이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공개 투표했다. '사망한 부모의 생년월일과 지원자의 생년월일'을 우선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과 '지원자 나이만 기준'으로 하자는 안은 각각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낮았다. 또한 모임에서는 "한 번도 모국을 다녀보지



못하고 사망한 부모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센터 모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던 반면,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주최 오후 3시 모임은 회원만 참가할 수 있었다. 200명 넘게 모였고,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연합회 회원들은 사전에 지원자 선정 기준 문제를 이미 논의한 바 있어, 이날 연합회 대표로 나선 박 블라디미르 임원은 "주요 기준은 사망한 부모의 생년월일"이라고 밝혔다. 토론 중에는 "부모 생년월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할 경우 모든 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특권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영순 회장은 할당 인원을 애초부터 1,000명 이상, 즉 매우 크게 정하면 가정 내 우선순위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모임에서는 지원자 선정 시 1세대 생년월일을 첫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세대 나이 80%, 2세대 나이 2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두 모임 모두 러시아어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또한 이규현 과장이 러시아어로 원활하게 소통한 점에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

모임 중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사연과 질문, 제안, 부탁 등을 했다. 한국 측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1세대 부모 관련 서류에는 문제가 많다. 사람들은 서류에 부모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이 잘못 기재되거나 혼동된 사례를 솔하게 호소했다. 이 과장은 "서류를 미리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오류가 있을 경우 한국 내 족보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1967년에 작성된 유명한 '박노학 명부'(사할린 동포 약 7천 명의 영주 귀국 희망자 명단)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줬다. 개별 사연

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모임에서는 이미 회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정비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고영순 회장이 덧붙였다.

이날 한국 측은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으며,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투표 결과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두 차례 모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이 참석했고, 한국 대표단은 이규현 단장을 비롯해 재외동포청 아주리시아동포과 서현규 주무관, 대한적십자사 박윤주 과장·오나현 대리·정병주 대리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우수 체육인 선발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사할린주 대학생 대상 제4차 체육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메달을 두고 대학 및 전문학교의 대학생들이 경쟁을 했다.

경기 프로그램에 정통 달리기 경주가 포함돼 남자들은 3km 종목에서 저력을 보였고, 여자는 2km 종목에서 달리기 경주를 벌인 가운데 심사위원단이 경기 결과에 따라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자를 발표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남자 달리기 종목에서는 마지막 결승선 몇 미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3km 종목에서는 사할린주 건설 및 주택 공공사업 기술전문학교를 대표한 스테판 알리소브 학생이 11분 33.8초를 기록해 최종 우승을 거뒀고, 여자 2km 종목에서는 사할린주 국립대를 대표한 올레샤 포고자야 학생이 9분 2.4초를 기록해 압도적인 우승들을 차지했다.

사할린 국립대 참가자들은 각 종목에서 상을 수상했다. 대학에서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우수한 점수들을 합산한 총결과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가운데 마침내 미래의 건설자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단체전 결과 1위는 사할린 건설 및 주택공공사업 기술전문학교가 차지, 2위는 사할린 국립대, 3위는 사할린 서비스 기술전문학교가 차지했다.

현재 대학생 대표팀들은 여름방학과 시험기간으로 안정을 취하고, 2026년 사할린주 정기체육대회가 가을에 재개되고,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미니축구, 탁구, 테니스, 농구, 배구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лучших бегунов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четвертый этап спартакиады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6, где за медали боро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узов и техникумов. Программа соревнований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классический кросс: юноши выявляли сильнейших на дистанции 3 километра, а девуш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забеге на 2 километра. По итогам стартов судейская коллегия определила лидеров как в личных зачетах, так и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венстве.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ужском забеге борьба за лидерство шла до последних метров дистанции. Быстрее всех 3 километра преодолел Степан Алис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ГБПОУ «СТС и ЖКХ»), — его результат составил 11:33,8.

У девушек на дистанции 2 километра зафиксирован абсолютный триумф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главного вуз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ни заняли весь пьедестал почета. Самой быстрой оказалась Олеся Погояя(9:02,4).

В общем зачете, где учитывали сумму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сех атлетов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нтрига сохранялась до конца. В итоге кубок победителей забрали будущие строители.

Итоговые места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1-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2-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ахГУ).
3-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сервиса.

Сейчас у студенческих сборных наступает перерыв на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и сессию. Очередные этапы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возобновят уже осенью 2026 года. В программ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турнир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состязания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баскетболу и волейболу.

사할린 경찰, 사기꾼의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연금수급자 구출

정보통신기술 불법이용 근절 부서 경찰관의 전격적인 대응 덕에 100만 루블리의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사할린주 내무국이 소식을 전했다.

모든 일은 재앙을 암시하지 않는 평범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공공서비스 직원으로 사칭하고, 오하 지역 피해남성의 아파트 입구에 인터폰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은 인터폰 교체 신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남성에게 메시지로 받은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다. 피해남성은 사기꾼들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경각심을 잃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것은 대규모 심리적 공격을 위한 트리거(trigger: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감정이나 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자극)가 되고 말았다.

공공서비스요원들이 작전을 시작한 직후 '로스핀모니터링'을 사칭한 직원이 전화해서 피해남성의 계좌 코드가 유출되어 차단되었다며 상대의 감정을 부추기고, 피해남성이 보안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꾼들은 약 5시간 이상 피해남성과 쉽게 통화를 유지하여 가족과 연락하지도 못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연방보안국 장교라고 사칭한 사람이 피해남성에게 전화해 즉시 은행에서 총 100만 루블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히 오하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행 항공권을 구입해 타고 와서, 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로 이동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또는 '특수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8면에 계속)

러시아-CIS 지역 거주 사할린동포 후손 64명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따라 사할린동포 2·3세 입국 가족 재회와 역사·문화 체험 통해 모국과의 연결 이어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외동포청 개청 후 2024년에 재개되었으며, 재외동포청은 2024년에 74명, 2025년에 64명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에 초청되는 사할린동포 후손은 모국에 영주귀국하여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2·3세 40명과 사할린동포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에 따라 입국하는 사할린동포 2·3세는 한국에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부모나 조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사할린동포 2세는 경북궁, 오두산 통일전망대, 수원 화성 행궁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의 정서와 일상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우리 정부의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 3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남긴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와 후손들이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3000명 사할린 동포 지원, 올해부터 지자체가 직접 살핀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지원 사업 활성화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앞으로는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 또는 정착 지원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은 최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사할린 동포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중 특별생계비, 복지급여 등 국고의 집행을 동포청이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제7조 제1항에는 “재외동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과 정착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를 반영한 것이다.

사할린 동포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사할린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들과 그 후손을 의미한다. 사할린 한인이라고 불린다.

지난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90명의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다. 지난 2월에는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완 옥

관리번호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완 옥	한자	金完郁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1896)		사망년월일	(1923)
본적	외국 중국 北間島		

공훈록

북간도(北間島) 사람이다.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일본은 대대적인 한국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그해 4월과 10월에 걸쳐 이른바 4월참변과 간도토벌(間島討伐)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연해주 등지에 있던 한국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이만을 거쳐 불세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노령(露嶺) 자유시(自由市 스보보드니, 혹은 알렉세예프스크)에 집결하였다. 1921년 3월까지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부대는 노령지역의 김 표도르 등의 이만군대, 최 니콜라이의 다반군대, 박 그레고리 등의 독립단(獨立團), 임호(林虎)와 고명수(高明秀)의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후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 일명 사할린부대), 오하묵(吳夏默)과 최고려(崔高麗) 등의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 일명 自由大隊)와 간도지역의 최진동(崔振東) 등의 총군부(總軍府), 안무(安武) 등의 국민회군(國民會軍), 홍범도(洪範圖) 등의 독립군, 서일(徐一) 등의 군정서(軍政署) 등이었다. 당시 자유시는 이르쿠츠크파의 문창범(文昌範) 등이 이끄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인민혁명군(人民革命軍) 산하에 한인보병자유대대를 조직하고, 오하묵을 대대장에 임명하여 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 10월 한인니항군대의 자유시 도착 후 이르쿠츠크파의 대한국민의회와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동휘(李東輝) 계열의 상해파(上海派) 간에 니항군대의 자유대대 편입문제와 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

다. 즉 문창범 등이 한인독립군부대를 자유대대 산하에 편입하였던 데 대해 이동휘 계열의 박애(朴愛) 등은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니항군대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하고 자유시에 집결한 모든 한인독립군부대를 그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휘 계열의 한인부에서 임명된 연대장 그레고리예프와 군정위원장 박 일리아는 종전 문창범 등이 자유대대에 편입시켰던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를 마사노프로 이주시키고 간도지역 독립군부대 역시 강제 이주시켰으며, 불응하는 자유

대대 장교들을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로 하여금 체포 혹은 무장해제시켜 지방수비대로 강제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대대의 오하묵·최고려 등도 이르쿠츠크에 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와 교섭하여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臨時高麗革命軍政議會)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갈란다라시윌린, 부사령관에 오하묵, 군정위원에 김하석(金夏錫)·채성룡(蔡成龍)을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갈란다라시윌린은 7일 자유시의 전 부대를 소집하여 자신이 고려혁명군정위원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하고, 8일 박 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1921년 6월 27일 사할린의용대 연대장 그레고리예프가 투항하자, 6월 28일 총사령관 갈란다라시윌린은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를 파견하여 사할린의용대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사할린의용대가 불응하자 공격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이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의용대는 전사자·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이다. 러시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1년 6월 자유시참변 당시 러시아 적군(赤軍)에게 체포되어 이르쿠츠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3년 경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3. 6. 24)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시지구협의회, 사할린 한인 어르신 '사랑의 효잔치' 개최

【충청타임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시지구협의회(회장 강충원)는 지난 7일 적십자 봉사관에서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맞이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아픔 속에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동포들로 영주귀국 확대 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 제천시에 정착했다.

이번 행사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버이날 노래 제창, 축하공연, 오찬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



▲ 제천시 제공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봉사원들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최승환 권한대행은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께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오신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즈나니예'사회단체, 학생들과 사할린의 연금수급자들 대상 <지식.보안>기획 시행

'즈나니예(지식)사회단체가 <지식.보안> 기획을 시작했다. 이 기획은 러시아 국민이 불법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 및 극단주의, 금융사기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며, 학생부터 노인세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즈나니예'사회단체가 전했다.

<지식.보안>기획이 시작되는 첫날 사할린주를 비롯해 28개 지역들에서 참가해 8천여 명의 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모임이 진행된 가운데 대부분의 행사가 사할린주와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사마라, 니즈니노브고로드, 부랴티야에서 개최됐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최근에 사기수법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매일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핵심

이 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범죄자들이 우선적으로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아동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되는 기획은 기술적인 보호, 계몽이라는 두 개 방면으로 시행된다. 첫째 방면으로는 사기꾼들의 사기체계와 해로운 콘텐츠, 불법 콜센터를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법집행기관 및 통신사가 함께 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조작, 거짓 및 가짜정보, 전화 및 인터넷 사기에 대한 분별을 비롯해 사기꾼들의 모집 활동과 이들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한 강연, 활동 교실, 수업이 진행된다.

이 기획은 2026년 말까지 학생과 대학생 백만여 명과 예방대책 종사자 1만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시행 방법론, 주제별 영상자료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н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приоритет по возрасту родителей

20 мая 2026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дв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лавной темой среди собравшихс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ло обсуждение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т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феврале 2025 года. А именно — ка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еализация спецзакона в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Благодаря поправкам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возвращ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членов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их супругов, детей, супругов детей — даже если с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прибывший на Сахалин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уже скончался.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нимаются корейцы,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или прибывшие туда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статья 2, пункт 1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хотела узнать мн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том, как на их взгляд должна проходить реализация закона, какими должны быть критерии очередности при отборе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желающих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вопросы обустройства детей и супругов детей умер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н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помогут разработать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й механизм применения закона. Новая редакция вступит в силу в сентябре 2026 года, через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го опубликования. Однако,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Ли Кю Хён — заведующей отделом Азии и России по дела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оконча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о конкретном порядке реализации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скорее всего, к концу 2026 года. Именно это агентство отвечает за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 Кю Хён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отбор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и выезд на ПМЖ по программе для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дети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те же сроки, что и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х членов семей. А именно: в мар-

те-апреле 2027 года —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в июне-июле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а выезд планируется на ноябрь-декабрь 2027 года.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по программе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только в Обществе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в России и в странах СНГ.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колько именно человек сможет уехать по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станет известно также в конце 2026 года. Важный момент: участником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стать как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или стран СНГ, так и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уже получивший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обоих собраниях. Первое состоялось в 10 утр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которая через соцсети приглашала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 оценк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участниками встречи стали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Велась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я, приехали люди из близлежащих город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СК из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ложила квоту по новой программе озвучивать отдельно от существующей (по живым родителям). Также от РООСК было передано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предложение сделать критерием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дату рождения заявителя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родители заявителя не смогли побывать в Корею по программам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лее двух трети зала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то, чтобы приоритет определялся по дате рождения родителей. Предложение учитывать возраст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плюс возраст подающих заявку, а также вариант, где главным критерием я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озраст желающих переехать, набрали примерно одинаково мало голосов.

Если встреча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была открытой, то встреча в некоммерческом объединени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проходила только для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 15 часов в офисе АСК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зал не вместил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десь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районов.

Поскольку члены АСК уж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бсуждали во-

прос приоритет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сразу озвучил: главным критерием должна стать дата рождения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было высказано мнение, что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очередности по дате рожд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се дети должны иметь равные права, то есть не должно бы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права для од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мь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К Ко Ен Сун предложила сразу сделать квоту очень большой — 100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Тогда вопрос о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и внутри одной семьи не возникнет. В итоге на собрании решили при отборе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читывать дату рождени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А поскольку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ритерии, то учитывать возраст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 80% и возраст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 20%.

Чтобы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понятна всем, на обоих собраниях работал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и. Немало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стало прекрасное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главой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Ли Кю Хён, которая корректно и со знанием дела контролировала ход встреч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 задавалось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Люд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ошибках и путанице в документах: неправильно записаны имена родителей, даты их рождения и смер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обратилась к сахалинцам с просьбой заранее привести документы в порядок. В случае ошибок в написании имён и дат, если есть записи в родословных книгах в Корею,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к ним. Она подсказала, что имя, возможно, удастся найти в знаменитом списке Пак Но Хака — перечн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желавших репатрироваться (составлен в 1967 году, в списке почти 7 тысяч имён).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обратятся за юридиче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ей к специалистам.

На собрании в АСК сообщили, что уже попросили своих членов проверить документы и привести их в соответствие. Если нужна помощь или консультация юриста, организация постарается её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заключ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вновь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услышать м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то, что они голосовали за критерии очередности, не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тельным решением — это лишь сбор мнений.

Виктория Бя.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8) Послал в южную часть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принадлежавшей тогда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Добывал уголь. Пригодились навыки шофера: трудился в шахте машинистом электровоза. Через пару лет освоился, обустроился и перетащил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семьи — мать, старшего и младшего (нашего героя) братьев и сестру на Сахалин. Было это в 1942 году. Значит, Ким Ен Черу исполнилось тогда десять лет.

Придется в некоторых местах повествования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датами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досье Кима до сих пор засекречена. Даже неизвестно, как звали его маму, с которой наш герой,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разлуки, сохранял трога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до конца ее дней. Существу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она происходила из корейской знати или из рода священнослужителей. И на фото с сыном выглядит женщиной благородной, достойной.

Жили в поселке Торо, в 1947 году переименованном в Шахтерск. Сейчас его население всего 6500 человек. Было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держалась плотно и дружно. Семейство Кима обитало в просторном еще японцами бараке с фанерными перегородками. Приходилось нелегко. Но Ким ходил в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Был он любимцем и надеждой не только матери — всей семьи. Главной целью было вывести мальчика в люди. С ним занимался брат — учитель. Даже жена одного из братьев, когда вся семья собиралась за столом, отдавала лучшие куски не своему сынишке, а Киму.

В 1945 году, после Победы над Японией, остров стал советским, японцы были с Сахалина депортированы. А корейцы остались, но в положении весьма двойственном: в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советские паспорта им не выдавались. Эта страница истории еще до конца не раскрыта. Но, понятно, что такая жизнь влекла за собой некую не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завтра? Паспорт, депортация?

Семья Кима верила в будущее. Накопили денег и построили дом. Скромный, небольшой, но зато свой. Значит, об отъезде не помышляли.

Ким Ен Чер окончил семилетку, что для ребят из небогатых семей считалось тогда уже достижением. Надо было помог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ам. Грамотный и смелый паренек устроился техником в Бюро технической инвентаризации. Но тянуло к учебе, занимался вечерами сам или с братом. И эти его сверхусилия заметили, приняли в вечернюю школу — сразу в девятый класс. Выучил русский язык. Естественно,

прекрасно знал и корейский, на котором общалась семья. Когда на острове еще находились японцы, он освоил и этот язык. Помогло, что учил его до десяти лет, когда семья жила в уезде Кочхан. Решил не бросать занятый японским языком и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его носителей.

Школьников, в 1953 году,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нял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ступил в комсомол. Кима, признанного лучшим учеником школы, особенно тянуло к наукам гуманитарным.

Как отличника-активиста в 1955 году Ким Ен Чер отправил в Москву в Центральную комсомольскую школу. Туда его, паренька с далекого Сахалин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инять без экзаменов. Но столица не понравилась, оттолкнула. Люди суматошны, на его вежливое обращение некоторые отвечали грубостью. Это был не его город.

И решил Ен Чер наведаться в колыбель трех революций — Ленинград. Сам не понял почему, но дешевый билет на сидячую боковушку в плацкарте взял только в один конец. Может, уже тогда пробудилось в будущем нелегале обостренное чутье? И, возможно, совсем не случайно попалось ему на глаза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иеме на факульте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тов. Жданова? Не подозревая, что поступает в престижнейший вуз, где на одно место претендовали 22 человека, на отлично сдал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у, историю, географию. Особо блеснул знаниями сложного языка, широко практикуемого в Азии.

Но, кроме учебы, где ему почти не было равных, требовалось и еще одно, очень важно-банальное, что дав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ть, — деньги. Семья помогать не могла. Конечно, немного выручала стипендия в 290 рублей, в общежитии жил бесплатно. А зарабатывал на жизнь занятием отнюдь не гуманитарным — ночной погрузкой-разгрузкой товарных вагонов. Бывало, так уставал, что и спал, забравшись в вагон и накрывшись для тепла мешками. Потом пошел кочегаром в котельную. На хлеб с чаем, а иногда и с маслом, хватало.

На старших курсах подрабатывал переводчиком в Институте зоологи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офессором, которому переводил сразу с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ов, и неожиданно увлекся этой наук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мог Киму поступить на за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би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Николай Ким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рем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года»

15 мая 2026 года в Москве на площадке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кластера «Арт.Техноград» (ВДНХ)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рем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года 2025».

В этом году оргкомитет премии зафиксировал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 646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 77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из

первых лиц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определил 135 финалистов в 30 номинациях.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рем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года» в номинации «онлайн-бизнес» стал Николай Ким из Мордови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Николай Ким занимается онлайн-продажами собственного бренда умной кухонной техники и товаров для дома «Nargazione».

Основной ассортимент его компании включает вакуумные упаковщики, аэрогрили и сопутствующие кухонные гаджеты.

В 2024 году выручка его 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и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3 годом более чем в 2,5 раза (с 157,6 млн рублей до 395,9 млн рублей). А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рост стал еще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м (более 1 млрд рублей).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и Японии приобрело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приобрело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из-за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и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ынках, вызванной ситуацие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Такаити Санаэ, состоявшейся 19 мая в Анд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Мы провели откровенный разговор как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артнёры, чтобы совмест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быстро меняющуюся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итуацию,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доверии, построенном благодаря челно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 отметил Ли Чжэ Мён.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договорились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в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с другими азиа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ключевых источниках энергии — сжиженном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и сырой нефти, подтвердили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в двустороннем, так и в трё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с участием США, - доба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н назвал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К и Японией «безграничными».

Делегация СК посетила учебный центр операторов дронов в России

Делегаци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етила учебный центр операторов дронов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ает 18 мая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ртал NK News со ссылкой на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группа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Намдо посетила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беспилотным летательным аппаратам в городе Белогорске. Т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уч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 разработке дронов и их применении в воен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сферах. Делегация наблюдала за операциям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уделил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и разработк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молодёжи.

В Лондоне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К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Ку Юн Чхоль провёл 18 мая в Лондоне презент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Это была уже третья с начала года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езента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Ку Юн Чхолем. В марте аналог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Токио, а в апреле в Нью-Йорке. Ку Юн Чхол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К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ой страной, обладающей передовым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сферах,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физ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ключая производство микросхем памяти, аккумуляторных батарей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иловых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сенсоров.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инвесторов налоговые реформы, включая поправки в коммерче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усиления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акционеров.

Режиссёр Пак Чхан Ук награждён французским орденом

18 мая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Чхе Хви Ён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е послание режиссёру Пак Чхан Уку, удостоенному французского ордена Искусств и литературы. Министр поздравил режиссёра с присуждением звания Командора ордена, отметив, что эта награда «убедительн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со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гордости за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и культуру». О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уникаль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ир, созданный режиссёром, стал источником вдохновения для творц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выразил глубокое восхищение «ег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покорившими мировую аудиторию, а также духом новаторства, открывшим новую эпоху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Орден Искусств и литературы присуждается деятелям, внёсшим выдающийся вклад в сферу культуры. Орден имеет три степени — кавалер, офицер и командор, причём степень командора является высш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ак Чхан Ук возглавляет жюри 79-го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открывшегося 12 мая.

Пианист Сон Сэ Хёк –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Пражская весна»

18-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Сон Сэ Хёк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категории фортепиано на 77-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ражская весна». Китайские пианисты Ван Чжицюань и Чэнь Сюэхун заняли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В финале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2 музыканта.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победителям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ось 14 м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узы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ражская весна»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в двух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чиная с 1947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конкурс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тегории фортепиано и флейта.

RKI

Сон Ён Гиль: Южной Корее над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Кандидат в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Ён Гиль заявил, что в случае возвращения в парламент намерен заня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е.

В интервью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МИ С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дним из его приоритетов станет вопрос возобновления им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и газа. По его словам, действующ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осят временный характер,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может быть смягчен или пересмотрен. Полити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если пройдет в парламент, намерен сделать эту тему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воей работе.

Сон Ён Гиль такж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считает ошибочным слишком жесткое привязывание Сеула только к одной стороне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йся мировой ситуации. По его мнению, США и Россия н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состоянии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со временем могут перейти к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ША и Россия не будут бесконечно оставаться в конфронтации,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они могут вновь пойти на сближение", - заявил он.

В этой связи Сон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рискует суз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если будет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одну сторону. Он выступил за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параллельную дипломатию - то есть з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разными центрами силы. По словам политика, для максим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гибк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ях как с США и Китаем, так и с США и Россией.

Сон Ён Гиль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сполагает собственными контактами и опы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оссией. В частност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период работы мэром Инчхон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л связ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и даже был награжден российским орденом после передач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е флага крейсера "Варяг", хранившегося в музее Инчхона.

Кроме того, политик сообщил, что недавно посетил США, где обсуждал в том числе атмосферу вокруг возможного смягче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Сеуле уже сейчас следует 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ому изменен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и заранее выстраивать каналы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Москвой.

Отметим, что Сон Ён Гил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ет широкие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и его хорошо знаю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 быт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он выполнял роль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бщался с выс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РФ, включа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2013 г.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Дружбы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и этом награду ему лично вручал росси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Сон Ён Гиль был мэром крупного города Инчхона.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ему в мегаполисе появилась "площад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ки в РФ находящегося у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флага того самого легендарного крейсера "Варяг". Сон занимал различные посты, неоднократно избирался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а также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был глав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оторая сейчас является правящей. О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ближайш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Южной Корее 3 июня. Сон претендует на освободившийся мандат депутата парламента от одного из округов Инчхо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Сеул объявил компанию, которая осуществит первую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одку контейнеровоза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PanStar Group выбрана оператором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контейнерной тестовой перевозки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из Пусана в Роттердам. Пробный рейс назначен на сен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ласти РК, компания PanStar была выбрана по итогам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объявл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океанского бизнеса и Ассоциацией судоход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ки принимались с конца апреля, однако в итоге на участие подалась только одна компания - дочерняя структура PanStar Group, PanStar Line Dot Com.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ки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ей именно она была официально утверждена оператором тестового контейнерного рейса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Для тестового проекта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задействовать контейнеровоз вместимостью около 3000 TEU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Сейчас комп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упки нового судна, которое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дано уже летом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изучается вариант приобретения подержанного судна с необходимым ледовым сертификатом.

Маршрут стартует и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усана, пройдет п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у проходу вдоль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ческой побережья через порты Арктики, норвежский Тромсё, порт назначения - Роттердам. Затем судно должно вернуться по тому же маршруту обратно. В Сеуле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позволяет сократить расстояние доставки между Пусаном и Европой примерно с 20 тысяч до 13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маршрутом через Суэцкий канал. На фоне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рисков для судоходства через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и Суэц значение арктического маршру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оценивают как растущ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океанского бизнеса заявил: "С учетом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морски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из-за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мы намерены готовить активизац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как долгосрочную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маршрутов для экспорта, импорта и перевозок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Сеуле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нынешний пробный рейс станет первым шаго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стратегии".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РК заявляли, чт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хода судна и согласования всех деталей они намерены вступить в контакт с росси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Напомним, чт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СМП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воды,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России.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мерены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ект.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PanStar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тестового рейса в объеме до 4 млрд вон из фонда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удохо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при наличии ледового судна компании обещаны финансовые льготы, включая снижение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до 1%, повышение коэффициента признания залога (LTV), а также скидки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в том числе на портовые сборы, стоянку и швартовку судов. Отде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и для грузоотправителей: им планируют выплачивать по 100 тысяч вон за каждый контейнер стандарта 1 TEU (20 футов), отправленный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Глава PanStar Group Ким Хён Гём назвал арк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м путем для логистик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тот, кто первым закрепится на этом рынке,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серьез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 будущем.

Справка "РГ"

PanStar Group - южнокорейская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из Пусана, основанная в 1990 году. Основной профиль компании - морские грузовые перевозки, паромно-круизное сообщение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логистик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Японией и частично Китаем.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а благодаря линии Пусан - Осака, где совмещает грузовые перевозки и пассажирские круизы. В Южной Корее PanStar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заметный, но нишевый игрок - не уровня крупнейших контейнерных гигантов вроде HMM, а скорее ка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пусанская морская группа" с сильными позициями в корейско-японской логистике и круизных перевозках. Компания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 морские экспресс-перевозки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у авиации и сейчас пытается развивать более премиальное круиз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ключая новый лайнер PanStar Miracle, который в Корее называют первым отечественным "люксовым круизным паром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Жильцы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в Смирных получат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до конца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ву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Смирных,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улице 50 лет ВЛКСМ возводятся два жилых дома общей вместимостью 100 кварти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йчас оба здания готовы наполовину. Сдач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ноябрь. 60 квартир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местятся в первом доме. Во втором будет 40 квартир на 2 тысячах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Здесь строится маленький микрорайон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ва дома уже возводятся, еще два появятся в будущем году. Тогда программа для тех, чьи квартиры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до 2022 года,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а. После этого мы переходим к следующей фазе и начнем работать с остальными.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заслуживает достой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удущие новоселы уже побывали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и осмотрели свои квартиры. Многие из них годами жили в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 В 2020 году мы создали комиссию по жилью.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се: фундамент сыпется, под полом подпорки из шлакоблоков, потолки смещаются. Дом признали аварийным. С тех пор ждали и наконец дождалась. В старой квартире каменный грибок, дышать нечем. У меня проблемы с бронхами, задыхаюсь там. Окна держу открытыми круглый год. А запах канализации в подъезде просто невыносимый.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за то, что нас не бросили,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Пшеченко.

Квартиры будут сдаваться с качественной чистовой отделкой. Новоселам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привезти мебель и личные вещи. Это позволит людям сразу начать жизнь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трат на ремонт.

— Недавно нас пригласили осмотреть квартиру. Все устраивает. Новое есть новое, вопросов нет. Это комфортное место в центре поселка. Шаговая доступность д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оликлиники. Территорию благоустроили, как возле других новых домов. Появятся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и парковки, — отметил Евгений Медянцева, житель военного городка.

Переселение граждан ведё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который запуст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тих домов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60 поисковиков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участвуют в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Рабочую поездку в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чал со встречи с участникам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 2026».

С 17 мая по 2 июня 60 патриот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Беларуси и Казахстана будут искать останки воинов, отдавших жизни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Поисковики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пки Обзорной и гор Длинной и Плоской – местах наступления 157-го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Раскопки продолжат и на смирныховских болотах, где произошли крушения военных самолет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полевой лагерь поисковиков и поздравил активистов с началом масштабной экспедиции.

—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очень важным делом – по крупным собираете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дальше передаете ее своим товарища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Это ваш фронт. А другой фронт развернут сегодня на дальних рубежах Родины, где наши бойцы тоже отстаивают правду и защищают интересы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В их руках наше будущее и будущее наших детей. В завтрашний день смотрим уверенно. История не раз доказывала: наша армия самая сильная и крепкая.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проходит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уже седьмой раз. За эти годы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более 350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поисковиков. Благодаря патриотам подняли и с почестями захоронили останки 26 красноармейцев. Некоторые безымянные бойцы обрели имена, а их потомки узнали о судьбе героев.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сотни исторических артефактов, которые пополнили коллекци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муз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в Смирных.

— Белорус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побывали во многих экспедициях. Сахалин оставался одной из неизведанных точек на карт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здесь работать. Были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ы, увидев,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ходятся памятники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Видно, что за ними ухаживают с трепетом и заботой. Главная цель – предать воинов земле со всеми почестями. Но

есть и еще одна цель – передать память молодежи. В ходе экспедиции у нас будет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 поделился поисковик из Бреста Петр Пицко.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в нее активно вовлечены члены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 Мы с однопартийцами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м субботники на местах воин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нового сквера памяти в Роцино. Сама история нашего района пропитана духом патриотизма. Именно здесь ш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рамках партийного проекта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включаемся в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вовлекаем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лодежь,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Татьяна Исакова.

Напомним, в Роцино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зрелищна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воссоздают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 это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сражени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строва. В 2025 году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ся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аю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роться с лесными пожарам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судили прохождение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Несмотря на раннюю и сухую весну, ситуация в области остается стабильной.

15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 пожароопасный сезон.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задействована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наблюдения. На вышках сотовой связи установлены 24 видеоканалы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оторые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фиксируют задымления и очаги возгорани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26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16 из которых оснащены тепловизорами. Утверждены 5 маршрутов авиационного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2400 километров и 61 наземный маршрут общей длиной почти 5400 километров.

— Мы тушим пожары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Это наш стандарт, который нельзя превышать. Но я ставлю задачу шире. Можем ли мы добиться того, чтобы показатели 2026 года были лучше прошлых лет? Я спрашиваю напрямую и слышу в ответ, что да, можем. Тогда двигаемся по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е даем пожарам гореть дольше суток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кращаем число самих возгораний,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атистика подтвержд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нятых мер. В 2021 году в обла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ли 270 ландшафтных пожаров. К 2025 году их число сократилось до 95. С начала нынешнего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период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 лесных пожара на площади 7,8 га и 59 возгораний сухой травы на площади 26,3 гектара. Все очаги ликвидируются в первые сутки.

На защите лесов работают 258 специалистов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ключая 57 бойцов парашютно-десантной 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В их распоряжении 168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Под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находятся 63 объекта, подверженных угрозе природных пожаров. Среди них 46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14 садоводств и 3 детских лагер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ходит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Завершить возведение объекта мощностью 138 мегаватт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6 году.

К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подключат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ят качество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для более чем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города. После ввода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тарая котельная, которая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а только с декабря по март, будет остановлена.

— Мы продолжаем работу на объектах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Сегодня я посмотрел, как готовится очередная котельная. Очень правильным было решение начать реконструкцию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котельных по концесс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се это делается для наших жителе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их жизни. Люди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тепло бесперебойно и в комфортном режиме. Забота о сахалинцах — наш главный приоритет,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одвигается по графику. Каркас здания полностью смонтирован и обшит сэндвич-панелями. Газопровод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километров готов на 85%. Также залит фундамент под дымовую труб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монтаж насосного и теплооб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Котельна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экологичной. И основное и резервное топливо — газ. Не будет никаких выбросов от котельной или другого топлива. Мы соответствуем всем стандартам, которы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зяла на себ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РИР-Сахалин» Максим Беккер.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уже замечают положи-

тельные перемены.

— Такие объекты определенно очень нужны и важны для города. Здоров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улучшае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Газовое отопление намного чище, будет меньше выбросов и загрязнения воздуха. Приятно осознавать, что власти думают не только о тепле в наших домах, но и об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 поделилась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Юлия Попова.

Отметим, объект воз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компанией «РИР-Сахалин», входящей в структуру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Запустить движение по новому участку улицы Горьк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 октяб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работ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 на участке от Больничной до улицы Зимы. Стройка находится в активной фазе, дорожники возводят мост и готовятся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Открыть дорогу для транспорта должны этой осенью.

— Улица Горького становится дублером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Город получит еще один выезд на Корсаковскую трассу, 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низ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пробок. Следим, чтобы работы шли в график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тяженность нового участка составит 2,2 км. Предусмотрен четырехполосный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Еланьку – на него сейчас брошены основные силы.

— Уже подняты все опоры, смонтированы буронабивные сваи. Занимаемся бетонированием ригелей и подготовкой балок пролетных строений. Все конструкци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аходятся на площадке. Параллельно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и обустройству подпорной стенки,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римерно посередине этого участка,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сентябре начнется укладка асфальта, и в октябре участок откроется для движения. На ноябрь останутся финальные штрихи – установка светофоров, останочных павильонов и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а также нанесение дорожной разметки.

Отмет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сдается ряд важных дорожных объектов. В сентябре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второй этап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роспекта Мира – на участке от улицы Пионерской до Украинской.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первый этап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из центра города и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воздух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бследование дорожной сет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выявило дефекты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95 кв. м. Все работы по их устранению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15 июня.

— Качество дорог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омфорт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жителей. Поэтому мы ежегодно приводим их в порядок и уже видим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Регулярный мониторинг покрытия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выявлять проблемные участки и быстро их устранять.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системному подходу, ям на наших дорогах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меньш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должен быть завершен к началу лета.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ключая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аботы необходимо закончить до первого июл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ступили к фрезеровке участка улицы Чехова от улицы Маяковского до улицы Садовой. Параллельно бригады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межпоселковые дороги.

— Смирныховское ме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 мониторинг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Активисты совместно с депутатами 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еряли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Были выявлены разрушения на улицах Чехова и Южной.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уже ведутся.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района смогут комфорт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по улицам,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Татьяна Исакова.

В районе уже ес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Так, улица Ленина приведена в порядок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лено покрытие на улице 8 Марта.

— В рамках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производятся работы по локальному устранению дефектов. Дорога в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но ямочный ремонт требуется. Помимо этого участка, занимаем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межпоселковых дорог, — пояснил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АТП Юрий Сосин.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явили 8401 дефект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94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местных дорогах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2525 из 4349 поврежденных.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ссах устранили 1650 из 2658 дефектов. На федеральных дорогах восстановили 913 из 1394 участков.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ыполнено почти 70%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объе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연해주 한인사회를 품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재외동포청,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 로 故최재형 독립운동가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를 돌보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故최재형(1860-1920) 선생을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자신의 재산과 삶을 한인사회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고 따뜻하게 품어준 모습 때문에 연해주 한인들은 선생을 러시아어로 난로를 뜻하는 '페치카(ПЕЧКА)'라고 불렀다.

가난한 이주민 소년에서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최재형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의 가난한 소작인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지신허(地新墟) 한인 마을에 정착했다.

* 지신허 마을 : 1863년 최운보, 경흥 등이 13호의 한인들을 이끌고 월강하여 정착해 만든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어린 시절 집을 떠난 선생은 러시아 상선에서 일하며 언어와 국제 감각을 익혔고, 이후 연해주에서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선생은 사업으로 얻은 재산을 개인의 부를 위해 쓰기보다 교육과 한인사회 지원에 아낌없이 사용했다.

"배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써

최재형 선생은 교육이 민족의 미래를 바꾼다고 믿고 연해주 곳곳에 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니콜라예프스크 소학교를 비롯해 연해주 일대에 32개의 소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철도공사 현장 통역으로 일하며 강제 동원된 한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에

도 힘썼다.

안중근 거사의 숨은 주역이자 연해주 항일 투쟁의 선봉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 시 자금과 총기를 마련해 주고, 사격 연습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을사늑약과 러일전쟁으로 유린된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선생은 1908년 안중근, 이위종 등과 함께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했고, 함경도 국경 지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이는 등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

이후에도 항일 신문인 대동공보 사장, 권업회 설립, 전로한족 대표회의 명예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1919년 대한국민회의 의 외교부장을 맡아 항일운동에 전념했다.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독립운동가

1920년 4월 일본군은 연해주 일대에서 한인들을 학살한 '4월 참변'을 일으켰고, 당시 선생은 피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택에 남아 결국 일본군에 체포된 후 우수리스크 언덕에서 장렬히 순국했다.

일본군은 선생의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현재까지도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또 2023년에는 순국 103년 만에 우수리스크 최재형 기념관 뒤편의 흙을 국내로 가져와 아내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합장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최재형 선생은 자신의 성공과 재산을 동포사회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진정한 지도자였으며 "가정의 달"인 5월 연해주 한인들의 따뜻한 난로였던 선생의 삶을 통해 희생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5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22개국 한인 청년들, 중국 상하이에 모였다

민주평통, 14일부터 사흘간 '2026 세계 청년위원 컨퍼런스'

개최임시정부 청사·매현기념관 방문...'독립과 평화통일' 역사 탐방 진행

전 세계 22개국 한인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모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는 지난 5월 14-16일 상하이 서교호텔(쉬자오 스테이트 게스트호텔)에서 '2026년 세계청년위원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하이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22개국에서 91명의 청년 자문위원이 참가했다. 컨퍼런스는 지난 2016년 두바이에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올해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년자문위원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개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활동 방향 및 글로벌 연대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행사 첫날인 14일은 참가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네트워킹 시간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둘째 날인 15일에는 지난 10년간의 컨퍼런스 발자취를 돌아보고, 2026년 해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영상 강연을 통해 청년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후 분임토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상하이에서 만나는 독립과 평화통일의 길'을 테마로 한 역사 탐방도 진행됐다. 청년 위원들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루쉰공원(옛 홍구공원) 내 매현 기념관을 차례로 방문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렸으며, 역사 탐방 소감을 발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주강민 중국지역회의 청년위원장은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독립의 씨앗을 뿌리셨듯, 오늘 우리는 청년의 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찾은 22개국 한인 청년들

음과 손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심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행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함께 차기 컨퍼런스 개최지로 두바이 지역이 공식 발표됐다.

행사에는 서만교 중국 부의장, 최분도 아시아·태평양 부의장, 김점배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이경덕 주 중국공사 겸 북경총영사 등 민주평통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사와 격려사 등으로 청년 자문위원들을 응원했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는 성적의 핵심이고, 경쟁력의 주요한 도구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공부 재미있었다면 행복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공부는 좋은 겁니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낯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전이나 명작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행복한 언어 공부를 꿈꿉니다.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배운 영어의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미스터 스미스, 미스 윌슨' 정도의 이름이 기억나고, '아임 파인 펑크 앤유'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정도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무엇을 소통할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없는 문법 공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공부는 헛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어교육은 헛공부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헛일을 한 셈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영어로 된 글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영어로 남아있다면 더 좋겠지만, 기억하라고 배우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예전에 언어교육은 좋은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언어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읽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전부 외웁니다. 여러 번 읽었기에 따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그게 언어교육입니다.

제 기억 속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운 돌을 너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움직여보라고 합니다. 아이는 힘도 써보고, 도구도 이용해 보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듣기에는 무리가 있는 돌이었나 봅니다. 아이는 포기하고 아버지께 내 모든 힘을 썼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힘을 다 썼다고 항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너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영어의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에는 나만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애뜻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와 자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언제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을 내미는 노력 말입니다.

또한 나 역시 그의 능력이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게 도움을 청할 때 기쁘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내 작은 도움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그의 능력에 일부가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도움은 주고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의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You are not alon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는 언어 공부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오늘의 글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좌절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쁨을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대도 혼자가 아닙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피해남성은 은행 적금을 현금으로 찾고,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호텔에 묵으며 사기꾼들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등 모든 지시를 다 이행했다. 그러나 그의 호텔 방을 두드린 것은 사기꾼들이 아니라 진짜 사할린 내무국 요원들이었다. 오하 피해남성의 행적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추적한 경찰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다음 행동을 멈추게 했다.

피해남성은 "나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정부를 돕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수년간 모은 돈을 몽땅 날릴 뻔했다. 나를 특별히 주시하여 낯선 도시에서 찾아내어 설득하고, 잃어버릴 뻔했던 돈을 지켜준 경찰 요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조사 결과 피해남성의 100만 루블리는 단순한 사기 금액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을 대적하는 불법활동 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송금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금액은 피해남성에게로 돌아갔다.

Сахалинские полицейские вырвали пенсионера из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плена мошен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молниеносной работе сотрудников отдела по борьбе с противоправ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ПИ-ИКТ) удалос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кражу 1 000 000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началось с банального звонка, который не предвещал беды. Девушка на том конце провода представилась сотрудницей коммунальной службы и сообщила, что в подъезде охинца планируют менять домофоны.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заявки мужчину попросили назвать код из СМС.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енсионер знал о схемах обмана, в этот раз бдительность подвела, и он продиктовал цифры. Это стало триггером для запуска масштабно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атаки.

Сразу после «коммунальщиков» в дело вступили лжесотрудники «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а» и внушили, что из-за слитого кода его счета заблокированы, а сам он попал в поле зрения силовиков. Аферисты беспрерывно удерживали пенсионера на связи более пяти часов, запрещая общаться с родными. Последним стал звонок от подставного «офицера ФСБ». Он приказал мужчине немедленно снять в банке наличными весь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срочно купить билет и вылететь из Ох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оттуда отправить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ли Хабаровск для передачи денег «доверенному лицу» или их зачисления на «спецсчета». Мужчине выполнил все инструкции: обналичил сбережения, прилет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заселился в гостиницу, ожидая дальнейших приказов кураторов.

Но вместо курьеров-мошенников в дверь номера постучали настоящие оператив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УМВД. Полицейские, отследившие подозрительную цепочку действий и маршрут охинца, буквально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остановили его.

«Я был как в тумане.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я помогаю государству, выполняю важную миссию, а на самом деле едва не отдал все, что копил годами. Спасибо ребятам из полиции, что вычислили меня, нашли в чужом городе, убедили и спасли мои деньги», — рассказал житель Охи. Следователи объяснили ошарашенному пенсионеру, что его миллион не просто хотели украсть — эти деньг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аправить на Украину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отивопра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тив РФ. Сейчас вся сумма возвращена владельцу.

러시아에서 14번의 대출로 총 1억 루블리를 받은 '대출의 여왕' 등장

러시아에서 독특한 대출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한 여성이 14건의 대출로 총 1억 루블리를 받았다. 그녀는 대출금에 따라 매달 약 150만 루블리를 금융기관에 갚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갚아갈 계획이다.

대출중개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이 13회 - 14회 대출한 사건은 부동산 구입이 목적이었다. 이 여성은 2018년에 첫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 빚이 늘어나자 2019년에 2회 대출, 2020년에 추가로 4회 대출을 더 받았다.

상당히 불안한 빚더미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최근 대출 중개인을 찾아와 부동산 구입을 위해 이번에는 1천만 루블리의 대출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대출의 여왕>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면 이런 식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연금도 보장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가능하다. 아파트 소유권이 아파트 주인에게 있으면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이 은행에 담보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들은 먼저 대출신청자에게 서면 대출허가 절차를 받도록 하고, 다음 세입자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В России нашли «королеву ипотек» с 14 кредитам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100 млн рублей

В России обнаружили необычный кредитный случай: женщина оформила 14 займ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100 млн рублей. Каждый месяц она платит по ним почти 1,5 миллиона — 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а этом. Подобности опубликовал PostNews.

Как сообщил кредитный брокер, 13 из 14 кредитов россиянка взяла на покупку недвижимости. Первые две ипотеки она оформила еще в 2018 году, затем нагрузка продолжала расти: в 2019-м появилось два новых кредита, а в 2020 году — сразу четы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айма. Несмотря на уже внушительную долговую нагрузку, женщина недавно снова обратилась к брокеру. На этот раз ей понадобились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выкуп не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Пользователи в интернет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стратегию «королевы ипотек»: «Купила недвижимость, сдает в аренду, таким способом расплачивается за кредиты. К пенсии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В целом такой вариан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зможен. Сдавать ипотечную квартиру разрешено, так как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остается за человеком. Однако недвижимость находится в залоге у банка, поэтому стоит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ть кредитный договор. Некоторые банки требуют сначала получить от них письме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а уже потом искать квартиросъемщик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